

1990년대 여성구두의 디자인 특성 연구

차은진[†] · 박민여^{*}

동신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Research on Design Character Female Shoes in 1990's

Eunjin Cha[†] · Meegnee Park^{*}

Dept. of fashion Design, Dongshin University

*Dept. of Clothing& Textiles, Kyunghee University

(2005. 7. 4. 접수)

Abstract

This thesis that is written by inquiring the shoes of 1990's, is written in order to propose the method of analyzing the changes of shoes design systematically. The picture to be gathered was a content analysis low at ARS and Accessory Collegioni since though the research method took shoes to 1990 ~1999. I categorized the design factors into shape, material, color, decoration. by using those category, the result of analysis of design character. In 1990's, boots, pumps and straps were the most popular in upper, point and rounded cuban and french were the most popular in toe, leather was the most popular in materiel, suede in F/W and patent in S/S. Black was the most popular color, brown in F/W and white/beige in S/S were the second. Re-created shape that was constructed through the reconstructions of structures and shapes of shoes, shape that was expanded to other genre were appeared in character of design factor. Material image was strengthened by varying patterns of unburned calf, leopard and zebra. Recognition of shoes color was expanded by using unique colorations and abstract, fresh figure colors. Post-modern tendency was appeared like using brassiere strap instead of back strap or using round string in elegant shoes.

Key words: Shoes, Categorized the design factors, Design character; 구두, 디자인 요소의 범주화, 디자인 특성

I. 서 론

구두는 인류역사와 더불어 변천, 발달하여 왔으며 복식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복식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미적 기준에 의해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되어 온 것과 같이 구두 또한 앞 시대와는 다른 조형미로 한 시대를 이끌어 왔다. 복식이 인체를 확장하거나 변형하여 변화를 추구하듯이 구두 역시 굽을 통해 신체의 비율을 변화시키고 새롭고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로 인체와의 상호작용

을 한다.

이집트 시대의 앞 코가 올라간 투탕카멘왕의 샌들과 그리스 시대의 창이 높은 연극인들의 구두인 코더너스(Cothurnus), 고딕시대의 앞 코가 길고 뾰족하여 금지령까지 발령 된 뿔렌(Poland)과 르네상스 시대 부와 과시의 상징이 되었던 높은 굽의 쇼핀(Chopin)처럼 구두는 때로 복식보다 더 과장적이고 유행적인 도구가 되기도 하였다. 20세기에 와서 Andre Perugia의 Elsa Schiaparelli, Paul Poiret를 위한 초현실주의 구두, Salvatore Ferragamo의 독특한 플랫폼(Platform) 구두, Roger Vivier의 뉴 룩(New Look)을 위한 매혹적인 구두, Manolo Blahnik의 우아한 펌프스(Pump)와 샌

[†]Corresponding author

E-mail: shoes-cha@hanmail.net

들(Sandal)은 구두디자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어 구두디자인을 통한 창조의 자율성을 열어 주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1970년대 반란 문화의 상징인 군용부츠 스타일의 Dr. Martins의 부츠와 1980년대 페미니즘적 성향이 표출된 높은 스틸레토 굽의 펌프스 그리고 1990년대 Vivienne Westwood의 18cm 굽의 페티시한 구두와 Issey Miyake의 아방가르드한 구두는 구두가 그 시대의 사상과 이념을 표현하는 문화적 주체가 됨도 보여주었다. 이러한 구두 디자인의 새로운 시도들은 구두 분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증폭시켰다.

구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구두의 발달을 시대별로 분석한 한국 근대 여자 양화에 관한 장선애(1976)의 연구와 구인숙(1980)의 고대 서양 신발에 관한 연구, 김선화(1986)의 서양복식에 나타난 신의 역사적 고찰, 최유화(1991)의 서양신발의 유형별 발달과정에 관한 고찰 등의 문헌연구와 구두 디자인의 소비자 선호도와 적합성을 연구한 김현희(1986)의 여성용 구두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여혜린(1994)의 성인 여자 구두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등의 통계를 이용한 연구가 있다. 이와 함께 동양신발의 특성을 분석한 조선희(1997)의 동북아시아 신문화에 관한 연구와 김지희(1987)의 우리나라 신에 관한 연구, 중국의 여자신발인 전족의 상징적 의미와 조형성을 고찰한 차은진, 박민여(2001)의 연구가 있다. 구두의 조형적인 측면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현대 구두디자인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의 특성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구한 것은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두의 디자인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구두디자인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밝힘으로써 시대별 구두디자인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방법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구두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구두의 창조적인 형태와 소재 개발 등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으며 미래 구두디자인의 개발방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내용분석으로 이루어진다. 내용분석에 활용된 분석자료는 구두 전문 잡지인 ARS지와 Accessory Collegioni 각각 7권을 가지고, 구두디자인 요소 파악의 객관성을 위해 구두 전문인 4명이

프레타 포르페, 오프 퀴뛰르, 알타 모다, 런던, 뉴욕, 도쿄 컬렉션에 발표된 구두를 중심으로 분석자간 일치도를 보이는 사진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1990~1995년까지 225장, 1996~1999년까지 235장 총 460장의 사진이 선별되었는데 중복되거나 구두형태 분석과 이미지 분류를 위해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1990~1995년까지 195장, 1996~1999년까지 215장으로 총 410장의 사진이 분석을 위해 선정되었다.

분석내용은 우선 1990년대를 F/W, S/S로 시즌을 구분하고 1990~1995년은 전반기로 1996~1999년은 후반기로 나누어 구두의 디자인 요소별 출현빈도를 확인하고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고 다음에 출현빈도를 근거로 1990년대 구두의 디자인 요소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III. 여성구두의 디자인 요소

본 장에서는 구두디자인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구두의 디자인 요소를 범주화하고자 한다. 디자인 요소별 범주와 유형을 분류하는데 기준이 된 개념들은 Picken(1987), Rossi(2000), 田中千代(1969), 日本靴總研究會(1991)의 이론을 기본 틀로 Read(1974)와 박석별(2000), 김현희(1986)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였다.

1. 형태

구두의 형태는 구두의 윗부분인 제갑의 형태, 구두의 앞모양인 코모양의 형태, 굽의 형태로 범주를 구분하여 그 유형을 살펴보았다.

제갑의 형태는 Picken(1987)과 田中千代(1969) 그리고 日本靴總研究會(1991)의 이론을 근거로 분류하였다. 田中千代와 日本靴總研究會는 구두의 유형을 구두와 샌들, 부츠로 분류하였는데 부츠와 구두의 구분은 제갑의 높이에 따라서 구분하였고 샌들은 구두와 발의 오픈된 정도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구두는 샌들과는 오픈된 정도로 부츠와는 제갑의 높이로 구분되어 사용되는 단화(短靴)의 의미이다. 구두는 그 형태에 따라서 펌프스, 스트랩, 옥스퍼드, 슬립온으로 구분된다. 펌프스는 1655년 처음 사용된 용어로 불어의 '장식'이란 뜻으로 처음에는 Pompe 또는 pumpe, panmpe라고 불렀다(Rossi, 2000). 과거에 착용된 펌프스는 남녀가 함께 착용한 슬립온 스타일의 구두로

굽이 낮고 단순한 형태였다. 그러나 20세기부터 주로 높은 굽이 펌프스에 부착되면서 여성용 정장구두로 정착된다. 스트랩(Strap)은 구두의 발등에 다양한 넓이의 띠가 하나, 둘 또는 여러 개가 둘러진 구두로 띠의 위치와 모양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옥스퍼드(Oxford)는 앞에서 끈으로 묶어 신는 구두이다. 슬립온(Slip-on)은 구두에 끈이나 버클 등 잠그는 장식 없이 신는 남녀 구두의 총칭으로 굽이 높지 않으며 제값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스타일 로 로퍼와 모카신이 있다.

코 형태는 화형(last, 구두에서 의상의 바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의 앞모양과 동일하다. 화형을 개발 할 때 이미 모양이 결정되어 조성되는 것으로 코 형태는 구두디자인 시 가장 먼저 고려되는 사항이다(Dowell, 1998).

코의 형태는 구두 코의 모양을 기준으로 앞이 뾰족한 모양의 코는 포인트 코(Point toe), 앞이 뾰족하면서도 도톰한 코는 오벌 코(Oval toe), 각지고 네모난 코는 스퀘어 코(square toe), 둥근 모양의 코는 라운드 코(round toe), 투박한 코는 블런티드 코(blunted toe)로 분류하였다.

굽의 형태는 굽의 높이와 모양에 따라 형태를 분류하였다. 굽 높이는 높이 정도를 기준으로 1~2cm 정도의 굽은 낮은 굽(Low Heel), 3~5cm 높이의 굽은 중간 굽(Middle Heel), 6cm 이상이면 높은 굽(High Heel)으로 분류하였다. 굽 형태는 창과 굽이 부착되는 제작방법과 굽 가슴의 모양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는데 창이 부착한 후 굽을 부착하는 것은 큐반으로, 굽을 부착한 후 창을 부착하는 것은 프렌치와 웨지로 분류하였다. 프렌치와 웨지는 굽 가슴이 일직선인 것은 웨지로 굽 가슴이 곡선인 것은 프렌치로 분류하였다. 웨지 중에서 창과 굽이 함께 몰드화 된 것은 플랫폼 폼웨지굽으로 분류하였다.

2. 소재

구두소재의 유형분류는 日本靴總研究會(1991)의 이론을 근거로 재원과 변형 정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재원에 따라서 가죽, 합성, 천으로 분류하였고 가죽 중에서 악어, 뱀, 도마뱀 등의 파충류 가죽은 특수피로 분류하였다. 가죽표면에 인위적인 변형을 준 것은 가공소재로 분류하였다. 비닐, 나일론 등은 합성으로 분류하였고 면, 마 등은 천으로 분류하였다.

가죽 1장의 중량이 25파운드 이상인 동물의 가죽은 '하이드(Hide)'라고 하고, 25파운드 이하의 작은 동물의 가죽은 '스킨(Skin)'이라고 부르며, 가죽의 품질은 동물의 종류, 연령, 산지 또는 살생시기와 등 여러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가죽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 소가죽, 1년 미만 된 아기염소(山羊)가죽인 키드 스킨(Kid Skin), 말의 엉덩이 부분가죽인 코도반(Cordovan), 돼지가죽인 피그 스킨(Pig Skin), 물소가죽인 버팔로(Buffalo), 사슴가죽인 디어 스킨(Deer Skin)이 있다. 가공소재는 가공법에 따라서 유형이 분류되는데 누벅(Nubuck), 스웨이드(Suede), 스피리트(Split)와 같이 가죽의 표면을 기모한 경우와 가죽표면에 코팅처리를 하여 윤기를 부여한 페이턴트(Patent), 컬렉티드(Corrected)가죽, 펄(Pearl)가죽 그리고 가죽표면에 인위적인 구김을 부여한 쉬링크(Shrink)가죽과 인공적인 무늬를 삽입한 엠보싱(Embossing)가죽이 있다.

3. 색채

구두의 색채는 구두의 소재와 밀접한 관계로 가죽의 염색성과 가공방법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색채 구성의 한계성이 의상보다는 많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현희(1986)의 연구와 박영순, 이현주(1998)의 색채 이론에 입각해서 구두의 색채를 구두에 사용된 색상 수에 따라서 분류하고자 한다. 김현희의 연구에서 가장 선호되는 구두색상으로 나타난 블랙, 화이트, 베이지, 브라운 색을 기본으로 구두의 색상이 한가지면 단일색으로, 박영순, 이현주(1998)의 배색과 패턴이론을 적용하여 구두에 사용된 색상이 명도, 채도, 색상의 대비에 의한 두 가지나 세 가지 단일색이 조합되어 사용된 경우는 배색으로, 재규어, 얼룩말, 표범처럼 자연 소재의 문양과 인공적으로 무늬가 삽입되어서 바탕색과 혼합된 경우는 문양색으로 분류하였다.

4. 장식

본 연구는 Read(1974)의 응용장식의 유형5가지와 박설훈(2000)의 복식에서의 장식유형 범주를 기초로 장식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기능적이고 도구적인 의미로 사용된 기본적인 형태의 버클, 끈, 지퍼 등은 기하학적 장식으로 분류하였고, 연속적인 반복으로 장식적인 효과를 주는 펀칭, 아일렛, 비즈 등은 유기적인 장식으로 분류하였으며 구두에서 탈착 할 수 있는

장식으로 순수히 장식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리본이나 로제트 등은 조형적 장식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식들은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IV. 1990년대 여성구두의 디자인 특성 분석

1. 1990년대 구두형태

1) 제감

1990년대 F/W 전반기에는 28.5%의 부츠와 27.7%의 펌프스가 가장 많이 나타난 제감<표 3>형태이고 다음은 16.2%의 옥스퍼드이다. F/W 후반기에는 부츠가 35.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은 27.3%의 스트랩이 많아 나타났다. 샌들과 펌프스는 각각 14.7%와 14.0%로 유사한 빈도수를 보였다. 1990년대 전후반기 F/W에 가장 많이 나타난 형태는 부츠와 스트랩, 펌프스이다. 전후반기를 비교해볼 때 옥스퍼드 형태는 전반기에 16.2%로 후반기의 4.0%에 비해 4배 정도로 많이 나타났고 후반기에는 샌들이 전반기

에 6.9% 나타난 반면 후반기에는 14.7%로 2배에 가깝게 나타났다. 따라서 1990년대 F/W 전반기에는 다소 발의 노출 정도가 적은 펌프스와 더불어 옥스퍼드가 구두<Fig. 1>의 주종 형태로 나타나 보수적이고 남성적인 이미지의 구두가 유행한 것으로 분석되며 후반기에는 샌들의 부각과 발의 노출이 많고 끈이 부착된 스트랩 구두가 높은 빈도수를 보여 여성적이고 장식적인 이미지의 구두<Fig. 2>가 유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1990년대 S/S 전반기는 S/S의 일반적인 구두 제감 형태인 샌들이 49.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특이하게 F/W의 일반적인 형태로 인식되어온 부츠가 21.5%로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제감 형태였다. 1990년대 후반기 역시 샌들이 35.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은 펌프스가 29.3%로 많이 나타났다. 1990년대 전후반기 S/S에 가장 많이 나타난 형태는 샌들과 펌프스이다. 펌프스는 여성의 가장 보편적인 구두의 제감 형태로 계절성이 적어 높은 빈도수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1990년대 S/S에 전후반기에 가장 많이 나타난 제감 형태는 샌들로 계절의 영향으로 발의 노출이 많아 통기성이 우수한 샌들이 선호도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1990년대 전반기에 부츠가 S/S임에도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시즌 파괴적인 경향으로 그 형태들은 주로 무릎 위로 부츠 길이가 올라오는 오버니(Over Knee) 부츠 형태로 코가 오픈 되거나 굽이 없는 것 등 통념적이고 관습적인 부츠 형태에서 벗어난 것들이 많아 구두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성으로 분석된다.



Fig. 1. '94 S/S Hermes, Accessory Collegio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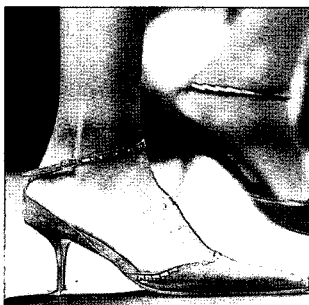


Fig. 2. '99 F/W Valentino, ARS

2) 코 모양

1990년대 전반기의 가장 많이 나타난 구두 코 모양은 39.2%의 포인트 코<Fig. 2>이고 다음은 오벌 코와 라운드 코가 19.2%의 같은 빈도수로 나타났다. F/W 후반기에도 역시 포인트 코가 43.3%로 강세를 보였고 다음은 23.3%가 나타난 스퀘어 코이다. 전후반기에 모두 가장 많이 나타난 뾰족한 포인트 코는 일반적으로 여성성을 표현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두 코 모양으로 1990년대 전·후반기에도 역시 여성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포인트 코가 가장 선호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전후반기를 비교할 때 전반기에 포인트 코 다음으로 포인트 코보다 약간 덜 뾰족하고 도톰한 오벌 코와 둥글고 편안한 라운드 코가 높은 빈도수를 보여 부드럽고 우아한 여성이미지의 구두 코가 유행한 것

으로 분석된다. 또한 라운드 코는 중성적 이미지의 구두형태인 옥스퍼드 제갑 형태의 구두를 위해 많이 사용되는 구두 코 형태로 F/W 전반기에 옥스퍼드 제갑 형태가 유행했기 때문에 분석된다. 후반기에는 각지고 다소 딱딱한 이미지의 스퀘어 코가 많이 나타나 개성적이고 강한 이미지의 구두 코가 포인트코와 더불어 선호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1990년대 S/S 전반기에는 포인트 코와 라운드 코가 각각 38.5%와 36.9%로 유사한 빈도수로 가장 많이 나타난 코 모양이고 후반기에는 라운드 코가 33.8%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은 26.2%의 스퀘어 코이다. F/W와 더불어 S/S 후반기에도 각진 스퀘어 코가 강세를 보여 1990년대 후반기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개성적이고 강한 이미지의 구두 코들이 선호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1990년대 구두 코는 전반기에는 포인트 코와 함께 오벌 코<Fig. 3>와 라운드 코<Fig. 7>가 많이 나타나 전통적인 고급스러운 여성적 이미지의 구두가 주종이었음을 알 수 있고 후반기로 갈수록 포인트 코는 코 길이가 길어지고 더욱 뾰족해졌고 스퀘어 코<Fig. 4>는 더욱 직선적이고 날카로운 형태가 되어 강렬하고 극단적인 여성성을 표출한 구두디자인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후반기에는<Fig. 5>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일본 버전 코 모양을 응용한 유희적이고 독특한 코 모양들도 출현했다.

3) 굽

1990년대 F/W 전반기의 굽 높이가<표 5>는 6cm 이상 굽이 64.6%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고 다음은 1~2cm 굽이 23.1%로 많이 나타났다. 굽 형태는 큐반 굽<Fig. 7>이 41.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은 33.1%의 프렌치 굽<Fig. 3>이 많이 나타났다. 후반기의 굽 높이가 역시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6cm 이상 굽이 75.3%로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였고 다음은 14.6% 나타난 3~5cm 굽이다. 굽 형태는 큐반 굽과 함께 전반기에 적은 출현빈도수를 보인 스틸레토굽<Fig. 6>이 26.6%로 같은 빈도수로 가장 많이 나타난 굽 형태이고 다음은 24.6%의 프렌치 굽이다. 전후반기 모두 굽 높이는 6cm 이상 굽이 강세를 보였고 굽 형태는 큐반과 프렌치 굽이 강세를 보였다. 전반기에 1~2cm 굽 높이가 높은 빈도수를 보인 것은 전반기에 편안한 형태의 남성적인 구두인 옥스퍼드 제갑 형태가 유행했기 때문에 분석되고 후반기에 6cm 이상 굽 높이가 더욱 증가한 것은 여성 굽 중 가장 날카롭고 뾰족한 굽 형태인 스틸레토 굽이 후반기에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굽 높이가 어느 정도 높아야 뾰족하고 날카로움을 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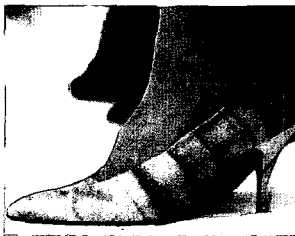


Fig. 3. '91 F/W Alma accessory collegioni



Fig. 4. '98 F/W Miumiu,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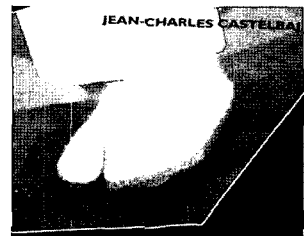


Fig. 5. '99 F/W casteljajac, ARS



Fig. 6. '95 S/S Chanel accessory collegioni



Fig. 7. '99 F/W D & G,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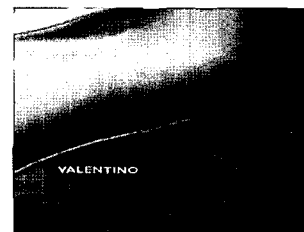


Fig. 8. '99 F/W Mario valentino, ARS

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S/S는 전후반기 모두 굽 높이는 F/W와 마찬가지로 6cm 이상 굽이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형태는 전반기에 프렌치 굽이 32.2%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은 썸머 형태로 착화감이 우수한 플랫폼 썸머 굽이 23.1%로 많이 나타났다. 후반기에는 큐반 굽이 41.7%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은 30.8%의 프렌치 굽이었다. 플랫폼 썸머 굽이 F/W보다 S/S에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는 것은 플랫폼 썸머 굽은 굽의 형태적 특성상 착화 시 바닥과 닿는 면적이 많아 프렌치나 큐반 등 바닥과 닿는 면적인 적은 다른 굽들과는 달리 끈으로 지탱하는 샌들류 등의 높은 굽에서도 안정감이 있고 대부분 굽 형태가 창과 굽의 일체형으로 무게도 가벼워 착용감이 우수하다. 1990년대는 전반적으로 굽 높이가 높은 것이 많았으며 F/W, S/S와 전후반기에 모두 큐반 굽이 높은 빈도수로 나타났다. 특히 후반기의 큐반 굽들은 과감하고 독창적인 형태<Fig. 8>들이 많아 구두의 디자인적 특성을 부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큐반 굽이 다른 굽들에 비해 제작이 간편하고 개발과정이 비교적 짧아 창의적인 구두 굽 개발에 제한성이 적고 경제적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 1990년대 구두소재

1990년대 F/W 전반기에 가장 많이 나타난 소재 <표 6>는 34.6%의 출현빈도를 보여준 가죽이었고 다음은 28.5%의 스웨이드/누벅이었다. 후반기에는 역시 가죽이 44.0%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으며 다음은 악어나 도마뱀 가죽 등의 파충류 가죽이 주류인 특수피가 19.3%로 많이 나타났다.

전후반기 모두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인 가죽은 가장 실용적인 구두소재로 고대부터 사용되었던 소재

다. 편리성과 견고함을 선호하는 현대에도 가장 적합한 구두소재라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며 F/W 전반기에 높은 빈도를 보인 스웨이드와 누벅은 기모가 있는 소재로 시각적으로 따뜻함과 포근함을 주어 F/W에 높은 빈도수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후반기에 F/W의 일반적인 소재로 인식되어 온 기모가 있는 스웨이드/누벅 대신 특수피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적극적이고 선명한 질감을 부여하는 소재가 선호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후반기에 합성소재가 전반기에 비해 많은 비율로 증가된 것은 남재경, 금기숙(2001)과 박신희(1999)의 연구에서 1990년대 후반기에 스포티/사이버 룩이 증가된 연구결과로 볼 때 스포티/사이버 룩의 의상과 조화를 위해 스포티/사이버 룩 표현에 주로 사용되는 합성소재가 구두 <Fig. 9>에도 많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1990년대 S/S에도 가장 많이 나타난 소재는 가죽으로 전후반기 모두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전반기에는 광택과 코팅성으로 여름에 적합한 소재로 인식되어 온 페이턴트가 23.0%로 가죽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소재였고 후반기에는 F/W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여름 소재로 인식된 페이턴트 대신 특수피가 17.0%로 많이 나타났다. 1990년대 구두소재로 전반기에는 기존에 주로 구두소재로 인식되어 왔던 가죽이나, 스웨이드/누벅, 페이턴트가 많이 나타난 반면 후반기에는 일부분의 구두소재로 사용되거나 고가의 구두에서 소량 사용되었던 특수피 <Fig. 10>가 다양한 패턴으로 변형되어 사용되었고 비닐이나 캔버스, 합성소재 등을 활용하여 구두소재의 제한성을 과감히 탈피했다.

3. 1990년대 구두색채

1990년대 F/W에 전반기에 가장 많이 나타난 색채는 36.2%의 블랙이고 다음은 30.8%의 브라운이다.



Fig. 9. '97 F/W Issey miyake, ARS



Fig. 10. '99 F/W D&G, ARS



Fig. 11. '99 F/W Emporio armani, ARS

후반기는 블랙 다음으로 화이트/베이지가 14.7% 브라운이 14.0%로 비슷한 빈도수를 보였다. 전후반기 가장 많이 나타난 색채는 블랙과 브라운이다. 후반기에는 기타 색도 두드러졌는데 기존 구두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높은 명도와 채도의 노랑, 초록, 보라 등의 색이 나타났다. F/W의 전반기에 브라운이 높은 빈도수를 보인 것은 구두형태에서 전반기에 높은 빈도수를 보인 남성적인 성향의 옥스퍼드 구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구두색채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후반기에 화이트/베이지가 높은 빈도수를 보인 것은 구두색상으로 보면 시즌 파괴적인 경향이나 여성복 겨울의상에서 화이트나 베이지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색상으로 구두의 색상을 계절보다 의상에 맞추는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그것은 기타 색의 증가도로 알 수 있다. S/S 전반기에 가장 많이 나타난 색채는 32.3%의 블랙이고 다음은 24.6%의 화이트/베이지이다. 구두에 두 가지 색이 사용되는 배색이 전반기에 세 번째로 많이 나타났는데 배색은 화이트/블랙의 배색이 많았다. 후반기에는 32.3%의 화이트/베이지가 가장 많이 나타난 색채이고 다음은 23.5%의 블랙과 20.0%의 브라운이다. 1990년대 S/S에 전후반기 가장 많이 나타난 색채는 화이트/베이지와 블랙이다.

4. 1990년대 구두장식

1990년대 구두장식 <표 8>은 F/W, S/S 모두 무장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F/W 전반기에 가장 많이

나타난 장식은 29.2%의 끈으로 끈장식은 옥스퍼드 구두의 주요한 잠금 장식으로 전반기에 옥스퍼드 구두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후반기에 가장 많이 나타난 장식인 15.0%의 버클과 15.3%의 지퍼는 버클은 스트랩 구두의 지퍼는 부츠의 주요 잠금 장식으로 후반기에 스트랩과 부츠형태의 구두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것은 구두의 기능적인 장식들은 구두착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구두형태에 따라 용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하게 F/W 후반기에는 스포츠 화에 주로 쓰였던 벌크로<Fig. 11>가 버클 용도로 사용되거나 스포츠화 형태의 도용으로 끈과 동시에 사용되었다.

S/S전반기에 끈 장식이 32.2%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것 또한 S/S 전반기에 부츠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며 S/S 후반기에 무장식 비율이 높은 것은 S/S 후반기에 잠금 장식인 필요 없는 펌프스 구두가 높은 빈도수를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990년대는 기능적인 장식들을 제외한 조형적 장식과 유기적 장식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수를 나타냈다. 따라서 장식을 배제한 소재나 색채, 형태로 구두 디자인을 변화시킨 순수 조형성이 강조된 디자인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구두의 디자인 요소를 범주화하여 1990년대 여성구두의 디자인 특성을 밝힘으로써 구두디

<표 1> 1990년대 구두 제감의 출현분포

(n(%))

시즌 연 대	제감 형태	펌프스	스트랩	슬립온	옥스퍼드	샌들	부츠	기타	총 계
F/W	1990~1995	36 (27.7)	18 (13.8)	2 (1.5)	21 (16.2)	9 (6.9)	37 (28.5)	7 (5.4)	130 (100)
	1996~1999	21 (14.0)	41 (27.3)	5 (3.3)	6 (4.0)	22 (14.7)	53 (35.4)	2 (1.3)	150 (100)
계	1990~1999	57 (20.4)	59 (21.1)	7 (2.5)	27 (9.6)	31 (11.1)	90 (32.1)	9 (3.2)	280 (100)
S/S	1990~1995	4 (6.2)	4 (6.2)	1 (1.5)	9 (13.8)	32 (49.3)	14 (21.5)	1 (1.5)	65 (100)
	1996~1999	19 (29.3)	7 (10.8)	2 (3.1)	6 (9.2)	23 (35.3)	5 (7.7)	3 (4.6)	65 (100)
계	1990~1999	23 (17.7)	11 (8.5)	3 (2.3)	15 (11.5)	55 (42.3)	19 (14.6)	4 (3.1)	130 (100)
총 계	1990~1999	80 (19.5)	70 (17.1)	10 (2.4)	42 (10.2)	86 (21.0)	109 (26.6)	13 (3.2)	410 (100)

<표 2> 1990년대 코 모양의 출현분포

(n(%))

시 즌	연 대	코 모양						총 계
		포인트	오벌	스퀘어	라운드	블런티드	기타	
F/W	1990~1995	51 (39.2)	25 (19.2)	20 (15.4)	25 (19.2)	6 (4.6)	3 (2.4)	130 (100)
	1996~1999	65 (43.3)	4 (2.7)	35 (23.3)	26 (17.3)	10 (6.7)	10 (6.7)	150 (100)
계	1990~1999	116 (41.4)	29 (10.4)	55 (19.6)	51 (18.2)	16 (5.7)	13 (4.6)	280 (100)
S/S	1990~1995	25 (38.5)	6 (9.2)	5 (7.7)	24 (36.9)	2 (3.1)	3 (4.6)	65 (100)
	1996~1999	10 (15.4)	7 (10.8)	17 (26.2)	22 (33.8)	6 (9.2)	3 (4.6)	65 (100)
계	1990~1999	35 (26.9)	13 (10)	12 (9.2)	46 (35.4)	8 (6.2)	6 (4.6)	130 (100)
총 계	1990~1999	151 (36.8)	42 (10.2)	77 (18.8)	97 (23.7)	24 (5.9)	19 (4.6)	410 (100)

<표 3> 1990년대 굽 높이와 형태의 출현분포

(n(%))

시 즌	연 대	구 분	굽 높이				굽 형태						총 계
			1~2 cm	3~5 cm	6cm 이상	굽 없음	프렌치	스틸 레토	웨이	플랫트폼 웨지	큐반	굽 없음	
F/W	1990~1999		30 (23.1)	15 (11.5)	84 (64.6)	1 (0.8)	43 (33.1)	15 (11.5)	4 (3.1)	13 (10.0)	54 (41.5)	1 (0.8)	130 (100)
	1996~1999		11 (7.3)	22 (14.6)	113 (75.3)	4 (2.8)	37 (24.6)	40 (26.6)	8 (5.5)	21 (14.0)	40 (26.6)	4 (2.7)	150 (100)
계	1990~1999		41 (14.6)	37 (13.2)	197 (70.4)	5 (1.8)	80 (28.6)	55 (19.6)	12 (4.3)	34 (12.1)	94 (33.6)	5 (1.8)	280 (100)
S/S	1990~1999		13 (20.0)	10 (15.4)	41 (63.1)	1 (1.5)	21 (32.3)	13 (20.0)	3 (4.6)	15 (23.1)	12 (18.5)	1 (1.5)	65 (100)
	1996~1999		12 (18.5)	10 (15.4)	43 (66.1)	0	20 (30.8)	2 (3.0)	4 (6.0)	12 (18.5)	27 (41.7)	0	65 (100)
계	1990~1999		25 (19.2)	20 (15.3)	84 (64.6)	1 (0.7)	41 (31.5)	15 (11.5)	7 (5.4)	17 (13.0)	29 (22.3)	1 (0.7)	130 (100)
총 계	1990~1999		66 (16.1)	57 (13.9)	281 (68.5)	6 (1.5)	121 (29.5)	70 (17.1)	19 (4.6)	61 (14.9)	133 (32.4)	6 (1.5)	410 (100)

자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앞으로의 구두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태는 제갑과 코 모양, 굽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제갑은 F/W의 전반기 후반기 모두 방향의 기능이 있는 부츠가 제일 많이 나타났고 전반기는 여성구두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펌프스와 옥스퍼드가 많이 나타나 보수적이고 남성적인 이미지의 구두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고 후반기에는 발의 노출이 많고

끈이 부착된 스트랩 구두가 많이 나타나 여성적이고 장식적인 이미지의 구두가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S/S에는 전후반기 모두 계절의 영향으로 통기성이 우수한 샌들이 많이 나타났다. 코 형태는 F/W 전후반기에 모두 포인트 코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전반기에는 포인트코 다음으로 오벌 코와 라운드 코가 높은 빈도수를 보여 부드럽고 우아한 여성이미지의 구두 코가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후반기에는 각진 스퀘어 코가 많이 나타나 개성적이고 강한 이미지의 구두 코가 선

<표 4> 1990년대 구두소재의 출현분포

(n(%))

시즈	구 분	소 재						총 계
		가죽	스웨이드/ 누벅	페이턴트	특수피	천	합성	
F/W	1990~1995	45 (34.6)	37 (28.5)	12 (9.2)	18 (13.8)	16 (12.3)	2 (1.6)	130 (100)
	1996~1999	66 (44.0)	15 (10.0)	9 (6.0)	29 (19.3)	16 (10.7)	15 (10.0)	150 (100)
계	1990~1999	111 (39.6)	52 (18.6)	21 (11.7)	47 (26.1)	32 (11.4)	17 (6.1)	280 (100)
S/S	1990~1995	25 (38.5)	7 (10.8)	15 (23.0)	1 (1.5)	12 (18.5)	5 (7.7)	65 (100)
	1996~1999	35 (53.8)	4 (6.2)	9 (13.8)	11 (17.0)	3 (4.6)	3 (4.6)	65 (100)
계	1990~1999	60 (46.1)	11 (8.4)	24 (18.5)	12 (9.2)	15 (11.5)	8 (6.2)	130 (100)
총 계	1990~1999	171 (41.7)	63 (15.4)	45 (11.0)	59 (14.4)	47 (11.5)	25 (6.0)	410 (100)

<표 5> 1990년대 구두색채의 출현분포

(n(%))

시즈	구 분	단일색					배색	문양색	기타	총 계
		블랙	브라운	화이트/베 이지	레드 계통	골드/ 실버				
F/W	1990~1995	47 (36.2)	40 (30.8)	11 (8.5)	12 (9.2)	7 (5.4)	2 (1.5)	7 (5.4)	4 (3.0)	130 (100)
	1996~1999	47 (31.3)	21 (14.0)	22 (14.7)	16 (10.7)	9 (6.0)	7 (4.7)	13 (8.6)	15 (10.0)	150 (100)
계	1990~1999	94 (33.6)	61 (21.8)	33 (11.8)	28 (10.0)	16 (5.7)	9 (3.2)	20 (7.1)	19 (6.8)	280 (100)
S/S	1990~1995	21 (32.3)	3 (4.6)	16 (24.6)	5 (7.7)	3 (4.6)	11 (16.9)	2 (3.1)	4 (6.2)	65 (100)
	1996~1999	15 (23.0)	13 (20.0)	21 (32.3)	3 (4.6)	0	4 (6.2)	7 (10.8)	2 (3.1)	65 (100)
계	1990~1999	36 (27.7)	16 (12.3)	37 (28.4)	8 (6.1)	3 (2.3)	15 (11.5)	9 (6.2)	6 (4.6)	130 (100)
총 계	1990~1999	130 (31.7)	77 (18.8)	70 (17.1)	36 (8.8)	19 (4.6)	24 (5.9)	29 (7.1)	25 (6.0)	410 (100)

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F/W 전후반기 모두 굽 높이는 6cm 이상 굽이 가장 많았고 굽 형태는 큐반과 프랜치 굽이 많았다. 전반기에 남성적인 구두인 옥스퍼드 제갈 형태가 유행했기 때문에 1~2cm의 굽 높이가 많았고 후반기에는 여성 굽 중 가장 날카롭고 뾰족한 굽인 스틸레토 굽의 증가로 6cm 이상의 굽 높이가 많았는데 이것은 후반기에 여성스런 스트랩과 타이트한 부츠의 유행으로 낮은 굽보다는 높은 굽이 선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F/W, S/S와 전후반기에 모두

높은 빈도수를 보인 큐반 굽은 제작이 간편하고 개발 과정이 비교적 짧아 창의적인 구두 굽 개발에 제한성이 적기 때문에 분석되었다.

둘째, 소재는 편리성과 견고함을 선호하는 현대에도 가장 적합한 소재인 가죽이 F/W, S/S 모두 가장 많았고 F/W 전반기에는 기모가 있어 시각적으로 따뜻함과 포근함을 주는 스웨이드와 누벅이 많았으며 후반기에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경향이 두드러져 적극적인 질감을 부여하는 특수피와 합성소재가 많았

<표 6> 1990년대 구두장식의 출현분포

(n(%))

구분 시즌 연대		기하학적 장식			조형적 장식		유기적 장식	기타	무장식	총계
		끈	버클	지퍼	리본/로제티	금속				
F/W	1990~1995	38 (29.2)	7 (5.4)	6 (4.6)	8 (6.2)	5 (3.8)	8 (6.2)	13 (10.0)	45 (34.6)	130 (100)
	1996~1999	17 (11.3)	24 (16.0)	23 (15.3)	3 (2.0)	0	10 (6.7)	6 (4.0)	67 (44.7)	150 (100)
계	1990~1999	55 (19.6)	31 (11.1)	29 (10.4)	11 (3.9)	5 (1.9)	18 (6.4)	19 (5.8)	112 (40.0)	280 (100)
S/S	1990~1995	21 (32.3)	12 (18.5)	1 (1.5)	2 (3.1)	1 (1.5)	0	0	28 (43.1)	65 (100)
	1996~1999	6 (9.2)	7 (10.8)	1 (1.5)	8 (12.3)	3 (4.6)	0	1 (1.5)	39 (60.1)	65 (100)
계	1990~1999	27 (20.8)	19 (14.6)	2 (1.5)	10 (7.7)	4 (3.1)	0	1 (1.8)	67 (51.5)	130 (100)
총계	1990~1999	82 (20.0)	50 (12.2)	31 (7.6)	21 (5.1)	9 (2.2)	18 (4.4)	20 (4.9)	179 (43.6)	410 (100)

다. S/S 전반기에는 광택과 코팅성으로 여름에 적합한 소재로 인식되어온 페이턴트가 많았고 후반기에는 F/W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특수피가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셋째, 색채는 F/W 전후반기에 블랙이 가장 많았으며 후반기에는 구두의 색상을 계절보다 의상에 맞추는 성향이 높아져 화이트/베이지가 높은 빈도수를 보였고 기존 구두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밝은 색상의 노랑, 초록, 보라가 나타났다. S/S는 전후반기 가장 많이 나타난 색채는 화이트/베이지와 블랙이 거의 유사한 빈도수로 나타났는데 전반기에 블랙이 가장 많았고 후반기에는 화이트/베이지가 가장 많았다. 전반기에는 화이트/블랙의 배색도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1990년대 구두의 색채는 의상이 여름에 화려한 색상을 많이 사용하는 것과 달리 여름보다는 겨울에 다양함을 보였다. 구두의 디자인 범주 중 가장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다.

넷째, 장식은 무장식이 F/W, S/S 전후반기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F/W 전반기에는 옥스퍼드 구두의 유행으로 끈장식의 비율이 높았고 후반기에는 스트랩과 부츠형태의 유행으로 버클과 지퍼장식이 많았다. 특히하게 F/W 후반기에는 스포츠화에 주로 쓰였던 벨크로가 버클 용도로 사용되거나 스포츠화 형태의 차용으로 끈과 동시에 사용되었다. S/S전반기에는 시즌 파괴적인 성향으로 부츠가 많이 나타나 끈장식 많았고 후반기에 펌프스 구두가 높은 빈도수를 보여 무장식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장식을 배제

한 소재나 색채, 형태로 구두디자인을 변화시킨 순수 조형성이 강조된 디자인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전후반기별 F/W, S/S별 특징을 살펴본 결과, 전반기보다는 후반기가 S/S보다는 F/W가 디자인 요소별 변화가 많아 1990년대 여성구두의 디자인 특성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반기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했는데 F/W에는 부츠와 여성구두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펌프스와 남성적인 이미지의 구두인 옥스퍼드가 많았고 S/S에는 샌들이 많았으며 코 형태는 F/W, S/S 모두 뾰족한 포인트 코 형태가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는 오벌 코와 라운드 코가 많았다. 굽은 6cm 이상의 큐반과 프렌치 굽이 많았다. 소재는 F/W, S/S 모두 가죽이 가장 많은 가운데 F/W에는 기모가 있어 시각적으로 따뜻함과 포근함을 주는 스웨이드와 누벅이 S/S에는 광택과 코팅성으로 여름에 적합한 소재로 인식되어온 페이턴트가 많이 나타났다. 색채는 F/W에는 블랙이 S/S에는 블랙과 화이트/베이지가 대표적인 색상 이었다. 전반기에 대표적인 구두 후반기는 개성적이고 강한 이미지 구두들이 많았는데 F/W에는 극단적으로 뾰족한 포인트 코와 각진 스퀘어 코의 스트랩과 부츠가 많았고 여성 굽 중 가장 날카롭고 높은 굽인 스틸레토 굽이 많았으며 큐반굽이 과감하고 창의적인 형태로 나타나 구두디자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해체주의적 성향으로 제압은 기존의 구두형태고 구두창은 운동화 형태인 새로운 형태의 구두들이 출현하였다. 특수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구두소재의 질감을 부각시

켰으며 스포티사이버룩의 영향으로 새롭게 개발된 합성소재의 활용이 많았다. 색채는 구두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노랑, 초록, 보라색 등의 사용으로 구두색의 다양하고 풍부한 변화를 보여주었으며 구두장식으로 스포츠화에 주로 사용되는 벌크로 장식과 면직물 끈이 사용되어 타 장르로 영역이 확대된 절충적이면서 다원적인 성향의 구두들도 나타났다.

따라서 1990년대 대표적인 구두디자인은 F/W는 블랙 색상의 가죽으로 된 6cm 이상 큐반 굽의 포인트코 부츠나 펌프스, 스트랩이 되고 S/S는 화이트/베이지나 블랙 색상의 가죽으로 된 6cm 이상 프렌치 굽의 포인트코 샌들과 펌프스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여성구두는 계절을 초월한 소재와 형태개발로 시즌에 따른 디자인 개발의 제한성을 과감히 탈피하였고 남성구두를 여성구두로 재현하여 남성과 여성구두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양성적인 구두도 나타났으며 구두라는 장르를 초월하여 운동화와 혼합된 형태를 선보여 구두개념의 확장성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구두디자인도 구두라는 고정개념과 남성구두, 여성구두라는 경계개념에서 탈피, 다각적이고 다원적인 시각으로 좀더 과감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이 개발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패션쇼에 나타난 구두로 대상을 제한하여 실제 착용되는 구두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1990년대 여성구두의 일반적인 성향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토대로 다른 시대와 상호비교하는 연구와 시대를 좀더 세분화하여 구두디자인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남성구두도 분석하여 남녀구두의 변화를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구인숙. (1980). 고대 서양 신발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학술지*, 7(2).
- 김선화. (1986). *서양부식에 나타난 신의 역사적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수윤. (2001). *1990년대 전반기 패션에 나타난 색채의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희. (1987). *우리나라 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희. (1986). *여성용 구두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재경, 금기숙. (2001). A study on the analysis of fashion trends in 1990s. *한국의류학회지*, 25(9), 1645-1654.
- 박선훈. (2000). *복식에 있어서 장식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신희. (1999). *1990년대 해외 컬렉션과 국내 컬렉션과 패션 트렌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영순, 이현주. (1998). *색채와 디자인*. 서울: 교문사.
- 여혜린. (1994). *성인 여자구두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선애. (1976). *한국 근대 여자양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신희. (1997). *홍복아시아 신문화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차미승. (1999). *의복형태와 색채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차은진, 박민여. (2001). 전족의 상징적 의미. *한국의류학회지*, 25(8), 1398-1407.
- 최유화. (1991). *서양신발의 유형별 발달과정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INAXギャラリー. (1992). *靴のラビリンズ*. 東京: INAX Ltd.
- 田中千代. (1969). *服飾 辞典*. 東京: INAX Ltd.
- 日本靴總研究會. (1991). *良いクツの基礎知識*. 東京: 日本靴總研究會.
- Caovilla, P. B. (1998). *Shoes: Objects of art and seduction*. Milan: Skir.
- Cumming, V. (1998). *The visual history of costume accessories*. London: B.T batsford Ltd.
- Dowell, C. M. (1998). *Shoes-fashion and fantasy*. London: Thames and Hudson.
- Eunice, W. (1969). *A history of shoes fashions*. Lonon: Isaac pitam and sons.
- Laver, J. (1982). *Costume and fashion*. London: Thames and Hudson.
- O'keeffe, L. (1996). *Shoes: A celebration of pumps, sandals, slippers and more*. New York: Workman Publishing.
- Picken, M. B. (1987). *The fashion Dictionary*.
- Pratt, L. (1999). *Shoes*. London: Victoria and Albert Museum.
- Probert, C. (1981). *Shoes in vogue*. New York: Abbeville Press.
- Read, H. (1974). *The meaning of art*. London: Faber and Faber.
- Read, H. (1984). *Art & Industry*. 정시화 옮김 (1997). 서울: 미진사.
- Rossi, W. A. (2000). *The complete footwear dictionary*. Florida: Krieger Publishing Com.
- Salaman, R. A. (1986). *Dictionary of leather-working tools 1700-1950*. NewYork: Macmillian.
- The fashion Dictionary*. (1987). London: Mary Brooks Picken.
- Trasko, M. (1989). *Heavenly soles*. New York: Abbeville Press.
- Wilcox, R. T. (1948). *The mode in footwear*.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